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대림절 둘째 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축하-최서영 말은이

찬 양* 주 은혜를 받으려(찬 39장) 다같이

예배자 / 주를 예배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를 높일지라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9:32-43 다같이

특별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김은희자매

말씀선포 “생명은 생명을 낳고”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피난처 있으니" (찬 70)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대림절(대강절)둘째 주일 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3. 오늘 예배 후 건축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고동식 김원재 김희석 박창완 신호현)
4. 오늘 예배 후 공천위원회가 있습니다.
5.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한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2020년 한울림교회에 등록하신 분들과 기존 주소록에 있는 사진을 변경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 친교실에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본인용과 전도용을 가져가셔서 전도용은 전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큐티책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지경)
8.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보내고만 있는가 아니면 맞이하고 있는가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은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도 못한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채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는 비대면을 겸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정지된듯한 일년을 보내며, 모든 이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 소식은 내년이 되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라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12월입니다. 2020년은 마치 없었던 시간인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소중한 시간인데, 금년을 이렇게 보내고 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지난 2020년이 정말 안타깝고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은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무방비로 당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그렇게 보냈다고 할지라도, 다가오는 2021년은 제대로 맞이해야 합니다. 희망을 품어야 하고, 성도로서 사명을 고취해야 하고,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금년은 안전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할 일도 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2021년을 금년처럼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2021년에는우리가 새예배당에 입당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울림교회는 꿈을 이루는 새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431,676